

## 설비협회, 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 건의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17일 국토해양부 소회의실에서 제2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 추가 선임 및 실무위원회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산업 이미지제고분과 △건설산업 공생발전분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시장 창출분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협회 상임부회장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또한 건설산업 공생발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방안 및 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중 건설산업 공생발전방안은 △적정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대한설비건설협회 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강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산업재해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지금 위기이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사 상위 100개 기업 중 많은 종합건설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문건설업계에 전달되어 심각한 상황이다. 종합건설사가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하니 하도급업체는 실행공사비에

도 못미치는 초저가하도급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는 82% 이하를 저가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가격 평가적용으로 74%대까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현행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실행공사비에도 못미치는 저가하도급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돈 회장은 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률이 27%(기획재정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에서 건설산업정보망(KISKON)을 통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서가 100% 발급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에서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될 경우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제조합 보증약관의 지급사유를 건산법에 명시하여 보증금 지급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범위가 국가공사는 500억원 이상, 지자체공사는 100억원 이하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한범위를 완화해야 할 것”과 “건설현장에서 산재은폐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므로 PQ심사 시 산재를 가점항목을 꼭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설비협회, 적정공사비 확보대책 마련 건의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11일 용수산 서초점에서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주택관련 협회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과 이원재 주택정책관, 박민우 건설정책관, 유성용 주택정책과장, 김채규 건설경제과장이 참석했고, 협회 단체장에는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종인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홍수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

치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는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 단가[1,243,000원/m<sup>2</sup>(60~85m<sup>2</sup> 이하)]가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정해돈 회장은 또 “정부에서 작성하는 공사원가가 너무 낮아서 남는 것은 고사하고 적자시공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서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자재가격은 시공사가 구입하는 단가의 80% 이하”라고 지적하며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자재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공청회 무산



▲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10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을 비롯한 범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공청회가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지방조달청 앞은 500여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200만 건설인 다 죽이는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시행을 철회하라’, ‘허울뿐인 보완대책 최저가낙찰제와 함께 철회하라’는 구호와 피켓 물결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범건설업계는 PPS홀 앞을 가득 메우고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반대’를 주장했다. “100여명도 수용할 수 없는 소규모 강당을 마련한 것은 각계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정부 입장을 일방적이고 편법적으로 강요하는 설명회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건설업계는 또

“최저가낙찰제는 1962년 첫 도입한 이후 부실시공 등 논란으로 폐지와 재도입만 7차례 반복해온 불안정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민간경기 침체로 과당 수주경쟁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덤핑입찰에 따른 저가수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예상 밖으로 몰려든 인파에 당혹해 하며 공청회 장소를 맞은편 대강당으로 옮기며 개회를 시도했지만 건설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공청회를 열지 못하고 국회 재정소위 심의 이후로 연기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이날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끊임없이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건의를 해왔었다. ●

# 건설산업 이끄는 주역 공지 키워

- 14개 종목, 63명 입상 -



▲ 제19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11월 8일 건설서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19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11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설서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충북 음성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열린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3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박민규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문현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등 건설단체장과 수상자 가족 및 동료 3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설비분야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한 정해돈 회장은 “여러분들의 우수한 기술력은 품질 시공을 담보하는 밑거름이며, 건설환경이 어렵더라도 모두가 건설산업을 이끄는 주역이라는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한 다음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 인재확보에 심혈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인 발굴 및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상자 중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소속으로는 △건축배관 직종의 신영태[(주)



▲ 건축배관 입상자인 도봉민 씨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정해돈 회장

정도설비]씨와 김국환[(주)동연이앤씨], 도봉민[보산건설(주)], 김종관[(유)아남설비사]씨가, △전기용접 직종에는 유수호[(주)금화피에스시]씨, 이강형[(주)금화피에스시]씨가 입상했다.

수상자 63여명 전원에게는 해당직종 기능

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과 함께 상금,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됐고, 해외 산업연수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직종별 1위 입상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상과 함께 전국 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소속 입상자 명단

직종	순위	성명	소속회사	시·도회
건축배관	1위	신영태	(주)정도설비	서울특별시회
	2위	김국환	(주)동연이앤씨	서울특별시회
		도봉민	보산건설(주)	울산·광역시회
3위	김종관	(유)아남설비사	울산·광역시회	
전기용접	1위	유수호	(주)금화피에스시	서울특별시회
	3위	이강형	(주)금화피에스시	서울특별시회

# 기계설비분야 수상자 소감 한마디



## 건축배관 1위



## 신영태 (주)정도설비

###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

신영태 씨는 “회사의 추천으로 큰 상을 받게되어 기쁘다”면서 “경기대회를 개최한 건설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며, 격려해준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년의 근무경력을 가진 신영태 씨는 각 공정의 협력사와 공조하여 불화없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품질시공의 노화우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건축배관 2위



도봉민 보산건설(주)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품질시공의 지름길”

근무경력 30년의 도봉민 씨는 “1위를 놓쳐 매우 아쉽지만, 공식적인 대회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수상의 기쁨을 사랑하는 가족과 격려를 해 준 많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도봉민 씨는 “어떤 일이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시작도 끝도 좋다”면서 “시공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한 후 시공하는 것이 품질향상과 공기단축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보일러 기능장, 배관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도봉민 씨는 ‘산과 숲을 함께 보는 자세’를 평소 소신으로 삼아 시공의 정밀성과 전체 공정의 공기단축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배관 설비 분야의 최고 명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배관 3위



김종관 (유)아남설비사

“내 가족이 사용할 건축물이라는 생각으로 시공”

김종관 씨는 “대한설비건설협회로부터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 소식을 전해 듣고 무척 놀랐다”며 “울산·경남도회의 권유로 참가하여 좋은 경험을 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적극적으로 권유해 준 울산·경남도회 관계자 여러분과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시공해 튼튼한 건축물 완성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년을 근무하며 배관기능장, 용접기능장, 보일러기능장, 특수용접기능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종관 씨는 평소 “나와 내 가족이 사용할 건축물이라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종목에도 참가하고 싶으며 주변 동료에게도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적극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용접 1위



유수호 (주)금화피에스시

“정해진 절차 준수가 품질확보의 시작”

올해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최고득점의 영예를 차지한 유수호 씨는 “발전소에서 특수용접 작업자로 근무하며 압력부 용접과 관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회사의 권유로 참가하게 됐다”면서 “대회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준 회사 동료들 비롯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수상의 기쁨을 돌린다”고 밝혔다. 유수호 씨는 “초임계압의 스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압력부 보일러 튜브 용접사로서, 평소 기량을 꾸준히 향상시키도록 노력했다”면서 “무엇보다도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품질시공의 시작이라 생각했다”고 노하우를 밝혔다. 또한 “모든 일은 한번 시작하면 인정받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면서 “이번 큰 상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수호 씨는 근무경력 6년차에 용접산업기사, 건축배관기능사, 침투비파괴기능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시공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건설기능경기대회 수상자

‘중국 북경 현대자동차 제3공장 건설현장’ 견학



한편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제19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수상자들에게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엠코 북경현대자동차 제3공장 건설현장’을 견학하는 산업연수를 실시했다.

중국 북경시 순의구에 위치한 북경현대자

동차 제3공장은 연간 40만대를 생산라인을 시설을 건설 중이며, 오는 2014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총 1조원 가량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제3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제1·2공장의 연간 43만대에서 총 83만대를 생산하게 된다.○



# “상생협력 · 동반성장 선도적 역할”

(주)정도설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 수상



▲ 2011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건설경제신문사와 건설외주협의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이 후원한 ‘2011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해양부 정내삼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최우혁 지식경제부 동반성장팀장 등 정부인사를 비롯해 최상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 건설단체장 및 수상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주)정도설비(대표이사 이상일·이상천)는 “완벽한 시공을 통한 공사품질 향상 등 원·하도급 간 상생 및 협력증진에 노력하여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 ▼ 2011 건설협력증진대상 수상사

훈격	부문	업체명
국토부 장관표창	공로	롯데건설(주), 일성건설(주), 지에스건설(주), 금호산업(주), 한화건설(주)
	협력	마천건설(주), 보림토건(주), 삼지건설(주), 신광에코로드이엔씨(주)
	개인	노상규 삼성엔지니어링(주) 발주파트장, 우종덕 설비조합 관리부 보성팀장, 이욱재 한신공영(주) 외주구매부서장
지경부 장관표창	공로	쌍용건설(주)
	협력	(주)삼영기업
공정거래 위원장표창	공로	(주)도원이엔씨, 두산건설(주)
건단련 회장표창	공로	(주)고덕종합건설, 고려개발(주), 대원건설산업(주), 에스케이건설(주), 케이월드종합건설(주)
	협력	대명건영(주), 삼중건설(주), (주)원화조경, (주)정도설비, 종합전기(주)
대상		지에스건설(주)

# 기계설비 기술력 탁월 신재생에너지 분야 강점



▲이상일 (주)정도설비 대표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주)정도설비(대표 이상일·이상천)는 1984년 영일설비연구소로 출발해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계설비분야 전문설비업체다.

특히 총 47명의 기술자를 보유한 가운데 2008년 337억원, 2009년 491억원, 작년에는 455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는 업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해외에도 진출해 2006년 카자흐스탄 동일하이빌 기계설비공사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지역에서도 6개 원도급사의 협력업체로 기계설비 분야 전문건설을 도맡아 수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100kW 태양광발전소 2기를 비롯해 태양광 3~12kW 등 총 57세대와 풍력발전 2kW 2기, 지열 15세대, 태양열 19세대 등을 설치하는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기술력과 실적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 내 건설 3사와 두산건설, 코오롱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등 다수의 종합건설업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 최삼규 회장으로 부터 표창을 받는 이상천 (주)정도설비 대표